

治山綠化 10個年計劃의 內容

山林廳 提供

73. 6. 21. 金玄玉 內務部長官은 第1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을 發表했다.

이 計劃을 보면 政府가 앞으로 10年동안 總 100萬 ha의 林野에 903億원의 資金을 投入 有實樹, 速成特用樹, 長期樹等 總 21億3千2百萬本の 나무를 심어 푸른 國土를 만들 巨創한 內容인바 이날 發表된 本 第1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 內容의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산림은 전체국토 9,929천정중 67%를 차지하는 6,667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논, 밭, 2,290천정 23%에 비하여 3배가 되는 셈입니다.

2. 그 67%인 6,667천정중

국 유 1,296천정 19.4%

공 유 494천정 7.4%

사 유 4,877천정 73.2%의

비율로 그 소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3. 그 소유별로 입상의 내용을 보면

국유지 입목비율이 49.9%

공유지 입목비율이 7.4%

사유지 입목비율이 42.7%로 되어 있어 이 비율을 보더라도 얼마나 산주가 그동안 산에 무관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대 입목의 비율은 1정당 10.6m³임에 비추어

선진 일본은 71m³

선진 미국은 66m³

특히 독일은 138m³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때 독일의 138m³, 일본, 미국의 각각 71m³, 66m³라 하는 것은

우리 보다 독일이 138년, 미국, 일본이 각각 66년 71년,

산림에 관한 한, 우리 보다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의 산림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 공업적, 기타 여러 부문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모두 수출하거나, 가치있는 수목들로서 보배처럼 탐이 나는 나무, 산림뿐이라는 점입니다.

5. 우리 나라도 계속 노력하여 왔읍니다만, 연간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의하여 2,149정

또한, 병충해등에 의한 고사가 27,455정

도벌등에 573정

그리고, 정당히 허가된 벌채가 67,800정으로써 해마다 전 임야 1.5%에 해당하는 97,977정의 산림이 벗겨져 가고 있는 반면, 그동안 연간 평균 89,000정 1.3%상당을 매년 노력해서 식수하여 가꾸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6. 복지국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제일자원이 산림이고,

농업국가 덴마크 또한 산림의 개혁으로서 가난과 빈곤에서 탈피했습니다.

또한 근대 독일이 산림의 근대화로서 나라의 기초를 닦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이태리 포푸라 또한 너무나 유명하여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패전의 중지에서 급속하게 세계 제일류 부자 경제국으로 등장한 것은

일본의 풍성한 산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7. 전 임야가 심고 가꾸어져서 울창한 산림으로 해서 물이 풍부해지고,

그 풍부한 물로 해서 협소한 농토임에도 남아 돌아갈 정도로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한편 수력 발전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또 각양의 풍부한 임산림물이 각산업 생산분야의 원료로서 활용되어서 오늘의 공업국가로서의 탄탄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8. 산림처럼 외관과 내용이 일치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산은 우리들의 가장 큰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우리 나라를 부자로 부강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능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모든 산림이 울창하게 장식되어 알찬 재원이 되었을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푸른 의지와 긍지로서, 오직스러운 마음으로 희망과 더불어 나무를 심고 나무와 더불어 희망을 키워

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치산녹화」 제1차 10년계획을 밝힙니다.

9. 우리 나라의 임야는 임목지가 5,786천정, 무임목지가 833천정, 미조사가 48천정으로서 도합 6,667천정이 됩니다.

10. 그중 풍수해 등으로 피해유실이 염려되는 헐벗은 나지 84천정과 하상을 메우게 하는 계곡과 마을 주변의 미림목지중

조림적지 337천정

그리고 요 수중갱신지 2,300천

정중 마을에서 가까운 663천정

도합 1,084천정을

제 1차 10년계획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1. 모든 산림, 산지는 식목에 의한 산림과 헐벗은 평야의 구능지대의 초지초원으로 구분하여 속성으로 치장·피복함과 아울러 사방을 포함한 하천건설과 상호 연결하여 일관성 있게 연차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수종별조림 계획

수종	주목	부목	계		'73	'74	'75	'76	'77~'82
			면적	본수					
계			천 ha 1,000	백만본 2,132	천 ha 82	천 ha 101	천 ha 116	천 ha 129	천 ha 572
유실수	밤	감, 은행, 호두, 유자등	300	12	120	18	25	30	215
조성특용수	이태리포푸라인수원사시	오동나무, 오리나무, 아까시아등	505	1,427	13	43	61	79	309
장기수	갯	낙엽송, 삼나무 편백등	195	585	57	40	30	20	48

12. 1차 10년 계획은 전반 5년, 후반 5년으로 나누고, 전반 5년중 다시 '73, '74 2년은 조심스러운 준비년도로 하여 우선 질적 개량부터 시도하면서 점차 양적확대를 기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13. 1차 10년계획에 의하여 식수될 수종은 유실수의 주목인 밤을 비롯하여 10대 수종으로 표준화하겠으며 수종별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10년계획에 소요되는 총예산(안)은 903억원으로서 연차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14. 이를 위한 연차별 양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양묘에 있어서는 점차 마을양묘의 비

중을 높여 나가므로써 농민의 새로운 농외 소득원으로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양묘계획

(단위: 백만본)

구분	연차별	계	'73	'74	'75	'76	'77~'82
식재	2,132	232	286	317	340	957	

○ '73조림계획인 232백만본의 묘목은 이미 확보되어 지역별로 차질없이 식수하였으며 특히 은수원사시등 속성수종의 삼목식수 양묘를 대대적으로 전개중입니다.

15. 1차 10년계획은 속성수와 장기수를 7:3의 비율원칙으로 우선 속성 녹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 제 2차 10년에는 점차 장기 용재조성에 치중함으로써 완급(緩急)의 국가적 수요와 절실한 국민적 여망에 맞추어 푸른 재원으로서의 우리 산을 알뜰히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16. 이상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행정 수행상의 제질서와 뜻을 총 정리하여 나무를 심기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소득에 연결시키고, 국민식수로 유도하는 대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정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산녹화는 식수를 통한 산림녹화 및 초지초원조성에 의한 산지보전과, 사방을 통한 국토의 보전·녹화를 망라하여 지역단위, 완결주의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식 수

양묘로부터 식재, 육림, 보호까지로 포함하는 개념

◇ 식수 편성

모든 산지는 마을권과 지대권으로 구분하되 마을권을 연차적으로 지대권에 확대하고 산지기본조사에 의한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 소득을 위한 유실수
- 연료를 위한 속성연료림
- 용재를 위한 특용수와 장기수
- 사방초지·초원등으로 편성

◇ 사방 록화

산지사방(나지녹화, 일반사방, 특수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등으로 구분 실시하되, 전면피복위주의 노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작업 방법

식수+사방+소하천정비로 계통처리하여 지역단위 완결원칙으로 추진.

◇ 복차식 노임사업

일차투자사업에서 얻어지는 노임으로 제 2의

소득사업에 계속연결되어 나가도록 추진.

◇ 사업 우선순위

- 고속도로변→도로변→오지로 파급
- (나 지) → (속성수) → 장기수 → (수종갱신) (사태지) → (유실수) → (시장기 계) (회)
- 마을권→지대권

17. 이상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책 1. 자연보호

돌 하나, 잡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래 한줌을 보배롭게 보호하여 자연의 조화된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 개간, 토석채취등의 제한과 자연훼손자의 복구의무를 철저히 이행
- 자연 조수의 증식과 초류의 개발
- 국토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체 자연의 균형된 조화로서

년 2천만톤의 낙엽을 퇴적시키고—수분보호와 병충보호와 병충해방제, 50만톤 상당의 시비효과로 지력을 증지시킨다.

시책 2. 산림병충해 방제대책

소극방제에서 적극방제로 전환하여

- 방제팀을 구성하여 취약지에 대한 집중투약과 특별보호 지구를 설치하여 집중방제하고
- 조기에찰과 해충의 생태에 따른 년중방제의 실시
- 산림병충해방제의 획기적인 연구 개척 (농대, 임업시험장을 산림 병원화)

시책 3. 조수류의 보호, 증식, 방사

모든 조수는 일결 금렵하고 가금과 같은 정성으로 보호증식

- 총포사용의 금지, 불법약류에 의한 포살단속 강화
- 철새 도래지등 특별보호구역설치
- 조수 서식지의 환경조성, 유치

○ 야조류의 마을계약 사육, 방사

시책 4. 지력 증진 대책

- 낙엽채취의 제한
- 녹비채취는 공동작업
- 산림 전용비료의 개발보급
- 비료목 식재
- 도시쓰레기, 연탄재의 가공
시비 연구등으로 산지 지력을 증진

시책 5. 농촌연료대책

치산녹화의 전제가 되는 농촌연료 문제에 대하여는 대상 전가구 2,793천호가 사용하는 입산연료 6,888천%의 90%를 사용하고 있는 22,231개의 중·산각(中, 山間)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기성림에서의 불법채취 등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는 2,931 % (43%)을 정상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과 당면대책으로 무리 없이 해결하면서 산림녹화를 기할 것입니다.

◇ 근본대책

[방 침]

- 연료림의 조성확대와 관리철저
- 타계연료 공급확대
- 소비절약등을 강구

[연료림의 조성]

○ 신규조성	205천ha
○ 기성림중 요보식	204천ha
계	409천ha를

77년까지 조성완료하여

성공림	436천ha
드 합	845천ha에서

○ 82년까지 7,408천%을 채취하여 910천호분을 해결

[타계 연료공급](상공부주관)

○ 석탄은 72년 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유류, 가스등 타계연료의 공급을 확대 82년에는 3,871%, 1,033천호를 해결

[소비절약]

○ 농촌주택의 열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분구, 연돌의 개량 및 관계부처주관으로 축우쌍 사육, 주택개량보급, 입산연료 대량소비처의 연료전환등을 추진하여 77년부터 1,265천%, 301천호분을 절약

◇ 당면대책

[방침]

연료림조성, 타계연료 공급확대, 소비절약을 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완전마비 될때까지 비정상연료를 정상공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당면대책을 병행 실시.

(대책 1) 조림대상지 추풍령 식벌채(대상벌채)

—수종갱신+연료해결+양묘소득—

- 연차적으로 불량잡목림의 수종갱신조림
- 조림예정지의 추풍령식 대상벌채와 지존작업을 마을도급으로 실시하여 73년에는 2,500천% (597천호분)의 산물을 연료로공급
- 대상벌채지는 마을에서 추기에 사전 식혈
- 마을은 양묘장설치 및 묘목재배
- 정부는 양묘대 및 조림비지원

(대책 2) 가지치기, 간벌, 잡목 쏘아내기등 작업

가지치기, 간벌, 잡목쏘아내기등 작업의 적극화로 73년에 산물 2,914천% (694천호분)을 공급

- 채취방법 : 마을단위 공동작업
- 대상지지정 : 읍·면장(연차적순환지정)
- 채취시기 : 지역실정에 따라 결정
- 지도감독 : 읍면직원+지서경찰관+산주+리장, 산림계장, 마을지도자
- 산물분배 : 연료림—분수계약에 의함. 사유림—산주, 주민상호간협의 국공유림—양여

(대책 3) 현지연료자원의 활용

- 마을주변 유흥지에 아까시아, 싸티, 포푸

라등을 대량식재하고 콩대, 수수대등 전작부산물을 최대한 연료화하여 73년에 700천% (167천호분)을 공급

○ 농업부산물외 잠정적 연료화로 73년에는 60, 20천% (619천호분)공급.

시책 6. 입산 통제

◇ 방 침

- 방임, 무질서 입산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
-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자율적 입산금지
- 국민계도를 위한 홍보활동전개

◇ 행정통제

○ 다음 산림에 대하여는 그 구역을 정하여 입산제한

- 대상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학교연습림, 조림 및 사방시행후 5년이내의 임지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 방 법

- 표시판의 설치
- 홍보강화
- 산림사범 단속강화

◇ 산주에 의한 통제

산주등에 산림피해방지가 필요한 자기산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입산을 통제

- 국유림—국가
- 공유림—지방자치단체
- 사유림—산주
- 개발지역—시행자(산림개발법 제63조)

시책 7. 산화방지경보망

- 산화방지를 위한 경보체제 확립 (183개지역)
- 도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산화경방조직

시책 8. 선식후벌제

- 모든 벌채는 선조림후벌채, 일벌이식(一伐二植) 및 대상벌채등의 삼원칙에 의하고
- 벌채시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공동작업

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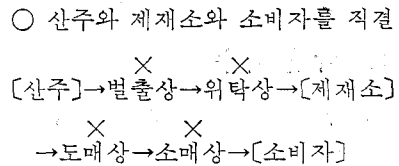
시책 9. 목재수급 계획

벌채수요의 억제를 위하여 목재의 소비절약을 단계적으로 기할 목표로

- 대용재의 개발과 목재의 수명 연장을 연구하고
- 팔프는 목재의 섬유식물의 사용을 개발하며
- 갯목, 팔프등 필수산업용재와 수출용 특수용재는 국내재를 생산공급
- 수출원자재등은 외제도입과 해외임지 개발 추진

시책 10. 용재 유통 구조의 개선

산주로부터 소비자까지 현행 7단계의 유통구조를 3단계 이하로 점진적으로 단순화함.



시책 11. 검목책임제

- 나무의 건강을 매목마다 책임있게 확인관리
- 묘목→조림→육림→벌채 등 과정별 확인
 - 묘목검사, 활착확인—매년 2회 5년간 시행
 - 전 산림의 카드화—명상일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시책 12. 산림책임 분담

- 관리+보호단속+기술책임을 삼위일체적으로 연대책임 화하여
- 기능별책임 { 종합관리—도지사, 시장·군수
보호단속—경찰서장지파출소장
기술지도—산림공무원
- 지역별책임 { 구역단위—기관장 및 담당공무원
마을단위—새마을 지도자+산림계원+리장
민통선지방및군영지—국방부
- 행정책임구역도 작성

시책 13. 산지묘 대책

무질서한 분묘를 점차 정돈하고 사장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 ① 시군읍면 단위로 시범 공동묘지를 설치
- ② 묘지의 공원화, 규격화를 추진

시책 14. 산주등록

산주에 대한 조림책임의식 부여와 조림의 계획과 지원을 위하여 일체 신고를 통한 산주 등록을

- 73. 4~7월중에 실시하며
- 신고내용은 조림책임자, 산림실태, 조림계획을 주로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고
- 등록된 것은 카드화하여 산림의 기본대장으로 하고 산림지원 시책의 근거로함.

시책 15. 국민 식수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가정과 단체, 기관과 학교를 통하여 국민식수 운동을 전개

- 마을조림 : 마을권의 산지는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조림(마을 중심 2km 이내)
- 기관조림 : 기관에 대한 책임조림지 지정
- 학교조림 : 학교림의 지정
- 산주조림 : 소유산지에 대한 1차 책임조림
- 기업조림 : 산림기업의 의무조림과 일반기업의 조림권장

시책 16. 의무조림 강화

- 대상업체—탄광, 제지, 제재, 합판등 업체에 대하여
- 일정기준의 조림을 의무적으로 실시

시책 17. 산림용자제도의 개선

- 용자는 수혜자와 용자기관의 직결로 하며 현금직불 원칙
- 농의소득사업시책의 일환으로 마을에 양묘조림 용자의 확대
- 산림개발 기금을 확대하여 조림자에 대한 장기 저리용자를 적극지원

시책 18. 주민소득과 직결된 마을조림

- 소득과 직결되는 유실수 위주의 마을 조림을 확대
(유실수→연료림→숙성림→장기수의 우선순위)
- 업자 중심의 양묘로부터 마을 양묘로 대폭 전환하고 그를 통한 소득을 부차적으로 확대 재투자

시책 19. 신품종 개발

- 빠른 녹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신품종의 연구개발.
- 벌채, 전지, 비료살포, 약제분무, 지방측정기등 산림장비의 개발과 도입

시책 20. 사방률화

단위 지구별 완결주의로 계통사방+완전사방+노입사방실시

시책 21. 초류의 증식 개발

산지의 개발은 식수에 의한 산림지대와 초지 조성에 의한 초원지대로 구분조정

- 초원지대는 우선 사료초류로 피복하고 조림실적에 의하여 한우임식
- 경제적인 초류종자의 대량확보
- 새마을 운동으로 풀씨모으기와 풀씨 뿌리기

시책 22. 산지 경계계획

(향측에 의한 임상도 보급)

- 전산지에 대한 향측조사 실시로
- ① 산지의 용도지정계를 확정하고
- ② 산지경제지도를 작성한다.
- 수종별, 지대별, 연차별 주체별 계획조림으로 새로운 산지 경계권조정—
- 도, 시군에는 연차별 조림실적 지도를 작성
- 이름없는 산에 대한 지역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애산정신(愛山精神)을 함양

시책 23. 적지적수관정기 보급

- 산지 경제지도의 작성순위에 따라 군별로

적지적수를 판단하는 관정기의 보급활용

시책 24. 수적부의 작성

- 우리 나라에 실행하고 있는 수목을
- 지역별, 산림대별, 수종별, 수령별 분포실태를 조사하여
- 지역별 임상수적부 작성
—임상관리의 기본자료화—

시책 25. 치산녹화의 전국민교육 및 홍보

나무와 산을 전국민의 상식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조림교육의 실시

- 전내무공무원 교육1차
- 마을 지도자2차
- 농민.....3차
- 특과교육.....4차

(임업시험장에 산림학교 병설)

교육 전시림을 도·시·군·읍·면 단위및 기관, 학교단위로 조성하며 매스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이상과 같은 국토녹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선산림행정조직과 기능을 동적, 개방적협장위주로 개편 강화하는 제도적인 시책으로

시책 26. 임업시험장의 업무확대

—업무의 범위를 전국의 산지로 확대—

- 산림학교의 병설로 전국민 산림기술 교육의 본장화하고
- 10대 수종에 대한 양묘의 양산(良産)과 교육 전시림의 조성
- 산림병원의 기능화로 산림병충해의 진단에 착

시책 27. 영림서의 운영 개선

- 영림서를 산림경찰서의 기능으로 개편
- 정원의 2/3는 계북관리
- 임무는
 - ① 일반임무로서 인근임야내의 산림기술 지도와 보호단속

② 특별임무로서 국유림 경영관리

시책 28. 조림지도사의 선발활용

- 농고 임과 출신을 조림지도사로 선발활용
- 임업기술자를 등록하여 조림 및 양묘지도

시책 29. 일선 산림행정기구 강화

이같은 산림 행정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 읍면에 산림전담직원 배치
- 군에 산림과 신설
- 도에 영림과, 식수과, 양묘과로 구성되는 산림국을 신설

시책 30. 산림통계의 정비

- 산림실태의 정확한 조사와 산림통계의정비

시책 31. 산림관계 규제법의 시행 철저

- 모든 산림 부조리를 삼제(芟除)하기 위한 산림관계법의 시행철저
 - 임산물 대량벌채, 이용, 판매자에 대한 조림명령 확행
 - 국유림 대부자의 의무 불이행의 전면조사와 엄격한 조치
 - 산림소유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철저한 대집행
 - 산림절도, 산림훼손, 산림방화, 실화등 산림범죄의 엄단
 - 산림공무원의 비유에 대한 엄중 가중처벌
- 이상과 같은 제반시책은 정부와 국민 의 빈틈없는 총화로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18. 우리의 산을 우리의 알뜰한 재원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자기약 전답을 가꾸듯, 그러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국민조림에 적극참여하고 국토녹화 시책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식수의 일상화

첫째,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생활화합시다.

나무는 식목일에나 심는 것이 아니라 년중 어

느때나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그리고 일반 주민은 가정과 마을에서 항상 심고 가꾸는 습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 산림보호, 도벌근절

둘째, 산을 항상 자기의 육신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이 힘을 합하여 산림의 도·남벌을 근절시킵시다.

울창한 마을의 산은 곧 마을 주민의 재산입니다.

◇ 선식 후벌

셋째, 벌채를 하기 전에 먼저 조림을 하고, 한그루를 베면 두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원칙과 양심은 모든 국민의 금지로서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 입산 통제

넷째,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단입산을 스스로 삼가하고, 금지된 수렵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 산주등록

다섯째, 산을 가진 분들은 금년 7월까지 어

김없이 산주일제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에 소의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병충해 및 산화예방

여섯째,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화예방은 마을 책임으로 노력합시다. 앞으로, 자기마을 뒷산에 병충해가 일고 있거나, 산화가 난다면 큰 수칙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전국민의 조림기술화, 조림의 소득화

일곱째, 산에 대한 애착과 조림기술을 익힙시다.

이제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조림기술자, 양묘기술자가 됨으로써 논밭 소득에 못지 않게 높은 산림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풀씨 뿌리기

여덟째, 마을주변에 벌거벗은 나지는 우선 풀씨를 뿌려서 산사태를 막고 초지를 조성합니다.

◇ 자연조류의 보호 증식

아홉째, 특히, 송충이를 잡아먹는 평, 피꼬리 등은 이를 적극 보호하므로써 산림보호에 앞장 섭시다. 끝